

#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조영아\*

- I. 서론
- II.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의 특징
- III. 2012년 학제개편의 내용 및 방향성
- IV.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특징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교육 담론과 2012년 9월 '12년제 의무교육제' 실시에 따른 학제 개편의 의미, 개정 중등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을 유추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육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 교육 추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월 학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육과정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됨에 따라, 일부 교과목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교과목 및 학년별 수업시간수 조정이 있었다. 특히 초급중학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통합형 교육과정 적용이 시도되었다. 둘째,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교과가 신설되는 등 정치사상교육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기초기술', '정보기술' 등 기술 관련 교과가 신설되고 자연과학교과와 기술교과 수업시수가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교육이 강화되었고, 특히 정보화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주제어:** 북한교육, 북한 교육과정, 김정은시대 교육, 12년제 의무교육

## I. 서론

북한 당국은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학제 개편의 골자는 기존의 4-6제 초·중등교육을 5-3-3제로 개편하

\*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고,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여 1년간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학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새 교과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 개편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은 한편으로는 2000년대 초반 김정일 집권기의 교육정책과 연속성을 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시대와 차별성을 기하는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교육 담론과 학제 개편의 의미, 학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등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의 방향성과 특성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3년에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을 활용하였다. 2013년에 발간된 ‘교육강령’은 개정된 학제에 따라 조정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강령’은 교과서의 구조와 교육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남한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을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강령과 교과서 작성을 위해 국가는 중앙교육지도기관, 즉 교육위원회에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강령’은 각급 학교, 학년별 교과 구성과 수업시간수와 전체 학기 일정을 명시한 ‘교육과정안’과 각 교과의 교육 내용, 방법, 교과 내용별 시간 배정 등을 명시한 ‘교수요강’으로 구성된다. 이전에는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교수요강’이 작성되었으나,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작업 과정에서는 ‘교육강령’을 먼저 작성하고, ‘교육강령’에 따라 교과서 집필을 위한 ‘집필요목’, ‘집필요강’, ‘전개된 집필요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도 2014년에는 1학년 교과서를, 2015년에는 2, 3학년 교과서를 만드는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제 개편에 따른 개정 교육과정은 2014년 각급 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학제개편의 성격과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강령 이외에도 교원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고등교육 등 북한의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활용하였다. 또한 남한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남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참조하였다.

<sup>1</sup> 『교육신문』, 2013년 1월 10일; 본사기자, “이렇게 세계앞에 나선다,” 『인민교육』, 2014년 3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4), pp. 16~18.

## II.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의 특징

2012년 학제개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은 2000년대 이후 북한 교육정책을 계승한 것임과 동시에, 김정일시대의 교육정책과는 구분되는 차이점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왔다.<sup>2</sup>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관건적 요소로 과학기술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 강화를 통한 단기간에 많은 인재 양성,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 발굴과 양성에 중심을 둔 교육체제 개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조기에 영재를 발굴하며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IT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교육 기간 단축, 세분화되어 있던 대학 학과 통폐합, IT, BT 등 첨단과학기술 관련 분야 학과 증설, 교육 과정 개편, 학점제와 선택교과목제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혁이 추진되었다. 중등교육에서는 교육자원의 동등한 분배보다는 인재의 선발과 선발된 인재에 대한 집중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 수재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진학, 졸업생 배치 등에서 실력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실력본위 교육’이 강조되고, 교육 방법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sup>3</sup>

김정은시대의 교육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2000년대에 등장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 2013년에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인 『교원선전수첩』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교육사업에서 ‘실리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체제와 교

<sup>2</sup> 북한은 1994년 김정일 명의의 문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사실상 ‘실리사회주의’의 효시라고 시사하고 있다. ‘실리’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98년이다. 그리고 2001년 10월 3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문건이 발표되면서 ‘실리사회주의’로 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인민들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실리를 얻도록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실리사회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사회주의원칙’, ‘인민들의 혜택’, 그리고 ‘최대한의 실리’이다.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3~15.

<sup>3</sup> 위의 책, pp. 154~165.

육내용, 교육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교육사업을 실력본위로 해나가는 것”이다. 셋째,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는 것”이다.<sup>4</sup>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이전 시기와는 약간 다른 어조를 띤다. 예를 들어 교육의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탐구를 하고 지식을 발견하는 교수, 자립적인 연구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교수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실력본위를 얘기하면서 평가방법 개선과 함께 상급학교추천과 졸업배치 제도 정비를 언급하는 점 등이다.

김정은시대 교육정책의 특징은 교육에 관한 김정은의 담화,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재생산되는 교육 관련 담론, 구체적인 교육정책 등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학제개정의 방향과 관련된 교육 관련 담론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는 김정은의 담화는 2012년 4월 6일에 발표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이다. 이 담화에서 교육에 관한 언급은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sup>5</sup>라는 한 문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한 문장에 담긴 키워드들, 즉 ‘국가적 투자’, ‘교육의 현대화’, ‘중등교육 수준 향상’, ‘대학교육 강화’, ‘세계적 수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담론으로 재생산되는 한편, 학제개정을 비롯한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나가고 있다.

교육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김정은의 담화문은 2014년 9월 5일, 10년 만에 열린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이다.<sup>6</sup> 이 담화문에서 김정은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이 되는 것”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교육자들을 질타하면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등일반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고등교육제도의 개선을 과제로 제

<sup>4</sup> 김용길, “교육사업에서 실리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교원선전수집』, 2013년 1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pp. 138~139.

<sup>5</sup>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sup>6</sup> 위의 신문, 2014년 9월 6일.

시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담화와 교육 관련 담론 속에서 김정일시대와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육정책 방향의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새 세기 인재’의 유형으로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비롯한 지적능력과 지식탐구방법을 향상시키는 지능교육을 통해 지식수준과 창조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sup>7</sup> 최근에는 ‘정보산업시대’와 함께 ‘지식경제시대’라는 시대 진단이 부각되고,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창조형 인재’가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창조적 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연구능력, 지식활용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고등교육체계가 ‘공업경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는<sup>8</sup> “배운 지식을 재현시키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에 토대하여 제 머리로 착상설계하고 새것을 발명, 창조할 줄 아는”<sup>9</sup> 사람이며, “튼튼한 기초학력과 복합형의 지식구조, 높은 정보소유능력과 경쟁능력, 협동능력을 가진”<sup>10</sup> 사람이다.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으로는 양성할 수 없는 ‘창조형 인재’ 양성에 대한 강조는 기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종합능력, 추상일반화능력, 판단추리능력, 상상력, 창조력, 언어표현능력, 문자표현능력, 그래프표현능력, 계산에 의한 표현능력, 계획화능력, 조직관리능력,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 학습능력<sup>11</sup> 등 구체적인 능력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식의 암기가 아닌 원리에 대한 인식과 응용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과학기술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과 교과와 정치사상교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정치사상교과에서는 기존의 지식전수 위주의 혁명력사교육에서 위대성교육 위주의 혁명력사교육으로 전환하여, 김정은과 선대 지도자들의 위

<sup>7</sup>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sup>8</sup> 차기철, “현시기 교육방법개선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12년 6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p. 36.

<sup>9</sup> 박영도, “새 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중학교 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교원선전수첩』, 2012년 3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p. 32.

<sup>10</sup> 『교육신문』, 2014년 4월 3일.

<sup>11</sup> 위의 신문, 2012년 11월 29일.

대성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sup>12</sup> 역사 교과에서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부터 스스로 교훈을 찾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과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13</sup>

또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수방법과 교과서 집필체계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학급교수의 시공간적구조 변화, 쌍방향 및 다방향 의사소통체계로의 변화를 통한 교사-학생 간 연계 강화, 학급인원수 축소, 좌석배치방식 변화를 통한 교수효율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교수 시간 설정, 조별교수 및 개별교수 강화, 능력에 따른 조별 편성, 학생 이동수업, 교원 간 협동교수, 컴퓨터보조교수 등 다양한 교수형식 개발과 원격교수 강화 등이 ‘지식경제시대’에 적합한 교수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sup>14</sup> 한편, 학제개정에 따른 새 교과서 집필 지침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과 조사, 가설설정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탐구정신과 탐구방법, 창조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교과서 집필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쓸모있는 산지식’과 정보탐색 등 ‘평생학습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결과적으로, 학제개정에 따라 새로 개편된 교과서는 ‘해보기’, ‘토론하기’, ‘생각하기’ 등을 통해 지식을 심화시키고 사고를 계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법칙을 유도하고 응용하며 결과를 종합하고 자신의 말로 서술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6</sup>

평가방법과 대학입학시험제도 연구 및 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육에서 평가방법 개선 방향으로 “원리적인 인식과 응용능력” 위주의 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며,<sup>17</sup> 이와 같은 기준은 대학입학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김정은의 지시로 2013년 말에 국가적 대학입학시험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

<sup>12</sup> 위의 신문, 2013년 5월 16일, 2013년 9월 5일.

<sup>13</sup> 위의 신문, 2014년 1월 30일.

<sup>14</sup> 김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형식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인민교육』, 2012년 4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pp. 24~25.

<sup>15</sup> 교육위원회, “우리는 어떤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는가,” (2013).

<sup>16</sup> 『교육신문』, 2014년 4월 3일; 전해선, “새 교과서를 리해하고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2014년 1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4), p. 50.

<sup>17</sup> 박영도, “새 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중학교 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p. 34.

업이 이루어졌다. 출제 방향으로 암기식학습만으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응용능력”을 중심으로 실천활동, 실기, 서술 및 발표능력 등 학생들의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도록 하였다. 시험문제 유형을 원리적인 인식 관련 문제와 응용능력 관련 문제로 구분하고 교과목마다 유형별 비율로 정하여 이에 맞게 출제하도록 하였다. 원리적 인식 관련 문제로는 개념·용어에 대한 인식, 법칙·원리·공식에 대한 원칙적인 이해, 사건·사실·현상의 원인과 이유 분석, 종합체계화 문제 등을, 응용능력 관련 문제로는 자료처리 문제, 실험방안 구상문제, 사물현상 모형화 및 변형처리 문제, 열린형 문제, 글짓기 문제, 관찰 및 탐구 문제, 논증 및 해설 문제, 그리기문제, 종합응용문제 등을 제시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평가방법의 개선 노력은 암기한 내용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평가 및 선발방법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라는 시대 진단은 교육 정보화 추진으로 연결된다. 이점이 김정은시대 교육정책 방향의 또 한 가지 특징이다. 지식경제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교수매체의 멀티미디어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교육의 발전, 학습환경 및 교수방식 설계 중시, 교육에서 인공지능 응용 연구 심화, 교육기술 응용방식의 다양화 등 다양한 교육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sup>19</sup> “교육의 현대화”로 명명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매체의 개발과 활용도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왔다.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습자료로 전자도서, 동영상자료 등 전자매체 활용, 모의실험이나 설계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원격교육이 도입되었다.<sup>20</sup> 이러한 “교육의 현대화”는 김정은시대에 “교육사업의 정보화”로 발전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사업의 현대화, 정보화”는 12년제의무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교수 및 실험실습의 정보화와 교육행정관리의 컴퓨터화, 교육기관들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sup>21</sup>

북한에서는 교육 정보화를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과 수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정보처리과정으로 만들어 인재양성사업과 교육행정관리

<sup>18</sup> 교육위원회, “시험문제출제사업조직요강.” (2013).

<sup>19</sup> 본사기자, “지식경제시대의 교육,” 『천리마』, 2013년 7호 (평양: 천리마사, 2013), p. 71.

<sup>20</sup> 『교육신문』, 2007년 1월 25일.

<sup>21</sup> 위의 신문, 2014년 4월 3일.

사업을 현대적으로 조직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22</sup> 즉, 교수활동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교육행정을 정보화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의 장점으로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시공간적 제약 없이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가르치고 참고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학습자들이 학습에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정보화의 과제로 교육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멀티미디어 편집물 제작기지 구축 및 보급체계 정비, 원격교육의 광범위한 도입, 교육행정 정보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23</sup> 2014년에 리과대학에서 쌍방향통신기능을 갖춘 온라인 원격교육체계를 개발해서 모든 학부에 도입하였다는 보도<sup>24</sup>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정보화는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은시대 교육정책 방향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세계적 교육 추세에 대한 이해와 이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은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다. “세계적 수준”, “세계적 교육발전 추세”에 대한 언급은 김정은의 첫 노작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2012년 4월 담화문에서도, 2012년 9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도, 2014년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최고지도자의 발언과 당의 공식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도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해설하고 이에 기반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자면 세계를 알아야 한다.”<sup>25</sup>,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본다.”<sup>26</sup>는 수사들은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사들이 전하는 세계적 교육 추세는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평생교육의 발전, 고등교육체계 통합, 고등교육을 통한 수재 양성,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직업화, 교육정보화, 분과형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의 이행, 통합적·연관적 사고능력 함양, 지식전수 위주에서 사고 위주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 탐구·발견식 교수방법, 토론식 교수방법 등이다.<sup>27</sup> 이중 의무교육

<sup>22</sup> 김덕현, “교육사업의 정보화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 『교원선전수첩』, 2013년 4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p. 54.

<sup>23</sup> 위의 글, pp. 54~56.

<sup>24</sup> 『교육신문』, 2014년 2월 20일.

<sup>25</sup> 위의 신문, 2014년 4월 3일.

<sup>26</sup> 차기철, “현시기 교육방법개선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p. 37.

연장, 중등교육 직업화,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교육방법 개선 등 많은 부분이 2012년 학제개정과 그에 따른 중등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반영된 것들이다. 특히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부분적이거나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통합적·연관적 사고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교육 역사상 없었던 일로, 교육 부문에서 선진국가들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적용하고자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 9월 전국일꾼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의 담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둔 제도 개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특히 박사원 과정 확대, 석박사 학위제도 연구, 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 개선, 대학의 종합대학화 및 전문학교와 대학의 통폐합 등은 좁은 전공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단과대학 중심의 현행 고등교육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조치이기도 하다.

### Ⅲ. 2012년 학제개편의 내용 및 방향성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가시적인 개혁 조치는 학제개편이었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하고 종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학제개편 이전의 기본 학제는 4-6-4제로,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학제가 2012년의 학제개편으로 인해 5-6(3-3)-4제로 바뀌었고, 중등교육은 전기중등교육기관인 초급중학교와 후기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로 분리되어 5년간의 초등교육, 3년간의 전기중등교육, 3년간의 후기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게 되었다.<sup>28</sup> 학제개정 추진 일정은 소학교 교육기간을 5년제로 연장하는 것은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종료하고, 중학교를 두 단계로 분리하는 것은 2013학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sup>27</sup> 『교육신문』, 2014년 4월 3일; 본사기자, “지식경제시대의 교육,” p. 71; 김영남, “교육의 형식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은 지식경제시대의 질실한 요구,” 『고등교육』, 2012년 6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p. 32; 『교육신문』, 2012년 10월 11일.

<sup>28</sup> 취학전교육기관으로 2년제 유치원이 있으며,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 취학연령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만 6세이다. 중등교육은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단선형 학제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실시 및 의무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를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1956년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후 의무교육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1975년에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무상의무교육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교육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교복과 교과서, 학용품 지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각종 ‘세부담’ 명목으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자생적 시장화 확산과 빈부격차 확대,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빈곤계층 아동이 증가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초중등교육의 전반적 질이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2년 학제개편은 이와 같은 교육적 위기와 김정은시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학제개편은 정치적 동의 창출과 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전자의 측면으로, 교육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컸던 김일성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이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경제 조치를 대체할만한 정치적 카드로 주민들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활용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의무교육의 확대를 김일성의 주요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의무교육의 확대와 교육개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집권자인 김정은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 확대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sup>29</sup>

둘째, 현재 북한 교육의 수준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바, 초등교육 기간 연장을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초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을 분리함으로써 후기중등교육에서 산업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는 해당 법령과 학제개편이 발표되었던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법령에는 이 학제 개편의 성격을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 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에서는 학제개편이 “소학교의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받으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부족점과

<sup>29</sup>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p. 70.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이 6년동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데로부터 나타났던 불합리성을 없애고” 청소년들의 연령적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인 의무교육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제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폭넓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수 있도록 중등교육의 내용과 질적수준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문은 북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당국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북한 교육 개선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중등교육의 질 관리라는 점이며, 중등교육의 질은 한편으로는 초등교육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중등교육기관과 후기중등교육기관의 분리를 통해 모종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초등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기중등교육기관과 후기중등교육기관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등교육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데 기인한 ‘불합리성’은 무엇인가? 학제 개편 이후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실린 사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합리성’은 학생들의 연령 및 단계별 교육 목적과 관계없이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에서 동일한 교과목 체계를 적용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13년 『인민교육』에 실린 논문에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습니다.”라는 김정은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의 의의는 “교종에 따르는 학과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소유하게 한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제 개편으로 초급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전 시기 중학교 저학년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자연과학, 기초기술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고급중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세분화된 자연과학과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과목을 가르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실에서 원만히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30</sup>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교과목의 ‘합리적 구성’이 한편으로는 중학교 저학년에서 교과목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통합교육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응용가능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sup>30</sup> 김광성,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제도는 학생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인재후비들로 키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 『인민교육』, 2013년 6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pp. 7~8.

기존 북한 교육과정은 교과가 세분화되고 교과목 간의 분리의 정도가 강한 분과형 구조로 구성되었다.<sup>31</sup> 학제 개편 이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으로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는 점은 북한 교육의 큰 변화로 주목할만하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교과목 구성에서는 완전한 통합형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일부 교과를 통폐합해서 교과목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1월 30일자 교육신문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내용 구성에서 통합교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합교육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32</sup> 첫째, 서로 다른 학과목들을 하나의 학과목으로 통합하는 학과목 통합 형식이다. 이를 적용하여 소학교에서는 ‘위생’과목이 자연과목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과목이 ‘자연과학’ 과목으로, 고·중·고등학교에서는 ‘심리학초보’, ‘론리학초보’ 과목이 하나의 ‘심리와 론리’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둘째, 동일한 학과목 내에서 주제별로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 ‘조선지리’ 과목에서는 위치, 지형, 기후, 수문, 자연 등으로 나뉘어있던 내용을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종합하여 가르치도록 구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셋째, 서로 다른 학과목 간에도 상호 연관된 내용을 유기적 관련 속에서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조선지리’ 과목에서 자기 지방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관찰, 견학을 진행한 다음 조사보고서를 정리하게 하는 동시에 국어과에서 고향의 아름다움, 고향에 대한 사랑과 긍지 등의 느낌을 동요나 동시 형식으로 글을 지어 발표해보도록 하는 것, 고·중·고등학교 ‘지리’ 과목에서 세계지리를 학습한 다음 컴퓨터 툴을 활용하여 세계지도를 그려보게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창조적 관점을 형성하며 실천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교과서 서술 방식도 연령별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성적 인식이 지배적인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관찰과정을 통한 귀납적 인식방법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논리적 사고활동이 활발해지는 고·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귀납적 방법과 함께 연역적 방법을 배합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고 있다.<sup>33</sup>

또 한 가지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응용가능한 지식의 습득이다. 이는 특히 고등교육이나 생산현장으로 연계되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sup>31</sup> Cho, J. A., Lee, H. K. & Kim, K. S., “Korea: An Overview,” Pei-tseng Jenny Hsieh ed., *Education in East Asia* (London & NY: Bloomsbury Academic, 2013), p. 31.

<sup>32</sup> 박광철·강성찬,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적리해,” 『교육신문』, 2014년 1월 30일.

<sup>33</sup> 교육위원회, “우리는 어떤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는가,” (2013).

중시되는 부분으로, 교과목 구성과 교육 내용을 중등교육 이수 이후의 전문기술교육이나 산업의 요구와 연계되도록 재편하는 시도로 나타난다. 2012년 10월 11일자 교육신문에서는 주요 교육의 방향으로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김정일애국주의 구현과 함께 현대과학기술수준을 반영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적 학습 능력 및 연구능력 형성, 실험실습교육을 통한 응용실천 능력 제고, 자동차, 트랙터 동작원리, 운전, 수리기술 등 활용가능한 기초기술지식 습득을 제시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여,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 ‘정보기술’, ‘기초기술’ 과목이,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에 ‘공업(농업)기초’ 과목이 신설되었다. 활용가능한 기초기술지식 습득에 대한 강조는 특히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기술교과가 초급중학교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 개정 이외에도,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기관으로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sup>35</sup>

#### IV.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특징

학제개편은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을 동반한다. 학제개편 당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으로 첫째, 김정일 애국주의 구현 등 정치사상교육 강화, 둘째, 기초과학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컴퓨터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 강화, 셋째, 실험실습교육을 통한 응용실천능력 향상과 기초기술지식 습득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이 이외에도 교육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 교육사업 정보화 등의 과제가 언급되었다.<sup>36</sup> 이 장에서는 학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교육강령’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시대 북한 중등교육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1. 교육목표

교육과정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문화 또는 경험을 교육적인

<sup>34</sup> 『교육신문』, 2012년 10월 11일.

<sup>35</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10월 2일.

<sup>36</sup>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관점에서 편성하고, 그러한 학습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묶은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sup>37</sup> 따라서 모든 사회의 학교 교육과정에는 그 사회의 특성,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이 반영된다. 학제 개편에 따라 개정된 교육강령에 명시된 교육목표는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교육강령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목표를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선군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사상교육 분야의 교육목표로 “학생들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고 학습과 생활에서 진실하고 문화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혁명적 수령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정신’, ‘육탄정신’이 체질화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본질과 원리 인식,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의 ‘말씀’ 신념화, 혁명전통의 옹호계승과 혁명적 기풍 함양,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인식, 군사 중시 사상, 집단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적 도덕 원리, 규범 및 국가 법, 규정 인식과 사회주의도덕 품성 함양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교육강령에서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 유훈의 계승과 관철을 강조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함양할 것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김정일애국주의’ 정신도 강조되고 있다.

둘째, 일반교과의 교육목표로 “학생들에게 중등일반지식을 충분히 주는 기초위에서 정보기술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옹기배합하여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기초지식교육, 자연과학 분야의 일반기초지식과 응용능력, 정보기술교육 분야의 기초지식과 조직기능, 정보처리능력, 기초기술 분야의 기초기술지식과 기술 소유 등이 포함된다.

일반교과교육에서 특히 정보기술교육과 기초기술 분야의 교육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2011년 1월 19일에 발표된 보통교육법에서는 주요 교육의 내용으로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

<sup>37</sup>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4), p. 100.

우면서 국어문학, 역사, 지리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내용 범주를 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외국어, 예체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 교육강령에서는 정보기술교육과 기초기술교육 분야에서 별도의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교육강령에서 이 분야의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정보기술의 기초지식과 조작기능, 정보처리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고 정보도덕과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윤리와 법질서 준수 태도 함양 또한 관련 세부교육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보급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불법행위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컴퓨터게임, 영상물 등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보적인 기술적 문제의 해결력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 부문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초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예능교육의 목표로,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예술적 기량, 미학적 정서를 체득시키면서 학습과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음악 분야에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미술 분야에서 그림 그리기 및 조형물 구성 등의 초보적인 창작능력과 미술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체육교육의 목표로, 학생들이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평생동안 체육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동능력과 체육기초지식,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교육의 목표로 노동능력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는 키 성장과 함께 육체의 조화로운 발달, 운동의 기초원리와 주요 체육종목의 기술동작, 전술, 경기 규칙 숙지 및 기술 습득, 국방과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용감성, 대담성, 의지, 인내성 함양, 위생보건지식 습득과 건강관리 능력 함양 등을 들고 있다.

다섯째, 군사적 능력 함양과 관련된 목표로, 조국보위가 최대의 애국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초보적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군사를 성실히 배우는 태도와 함께, 자동보총과 개인용반화확기술기재의 구조와 원리, 조작법 숙

지, 초보적 군사지식과 야전생존능력 취득 등이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 2. 교과목 편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과목을 배치하고, 주어진 일정한 교육시간을 교과목별로 어떻게 배정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변화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교과목 편제와 수업시수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차이와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파악한다.

### 가. 초급중학교

초급중학교는 3년제 전기중등교육기관으로, 소학교 5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만 11세 학생들이 입학한다. 일년은 두 학기로 구분되며, 1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방학은 매년 2회 실시되며, 총 학업일수는 연간 310일, 방학일수는 55일이다. 졸업식은 3월 28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교육과정은 총 52주로, 수업 34주, 집중 교수 2주, 시험 3주, 나무심기 1주, 새 학년도 및 새 학기 준비 10일, 명절휴식 1주, 방학 8주로 구성된다. 매학년 나무심기 1주는 봄에 4일간의 나무심기와 가을 3일간의 나무열매따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학년도 및 새 학기 준비기간은 10일간이며, 새 학년도 준비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2학기 준비는 9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급중학교의 교과목 구성 및 교과목별 수업시간수, 수업시간수 비중은 <표 1>과 같다. 3년간 총 16개 과목을 가르치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당 32시간, 연간 1,152시간, 3년간 총 3,456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45분 단위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이내, 토요일에는 4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초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구분	과 목	총시간	학년 주수			수업 시간수 비중(%)
			1 18/16	2 18/16	3 18/16	
정치 사상 교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36	2	2	-	3.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136	-	2	2	3.9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34	1	-	-	1.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102	1	1	1	3.0
	사회주의도덕	102	1	1	1	3.0
	소계	510	5	6	4	14.8
어학· 인문학 교과	국 어	510	5	5	5	14.8
	영 어	408	4	4	4	11.8
	조선력사	136	1	1	2	3.9
	조선지리	102	1	1	1	3.0
	소계	1,156	11	11	12	33.4
자연 과학 교과	수 학	578	6	5	6	16.7
	자연과학	510	5	5	5	14.8
	소계	1,088	11	10	11	31.5
기술 교과	정보기술	192	2주	2주	2주	5.6
	기초기술	102	1	1	1	3.0
	소계	294	1	1	1	8.5
예체능 교과	체 육	204	2(1주)	2(1주)	2(1주)	5.9
	음악무용	102	1	1	1	3.0
	미 술	102	1	1	1	3.0
	소계	408	4	4	4	11.8
주당 시간수			32	32	32	-
계, 학년별교수시간수		3,456	1,152	1,152	1,152	-
과외학습		(540)	(5)	(5)	(5)	-
소년단생활		(432)	(4)	(4)	(4)	-
과외체육		(306)	(3)	(3)	(3)	-

전체 교과목 수가 16개로 많지만, 교육과정 개정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세분화의 정도가 낮아져, 저학년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정책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사상교과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과 같이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 역사 관련 교과와 사회주의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이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과목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전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의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교육강령 상에 김정은 관련 교과의 세부적인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담은 교수요강과 교과서 편찬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이 교과의 내용은 김정은 지배체제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부각시키고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문·사회과학 교과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국어’, ‘영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과목이 있다. 이전에는 외국어교과로 영어, 러시아어 등을 학교별, 반별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새 강령에는 영어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중학교에서는 외국어로 영어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수학’, ‘자연과학’ 과목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가 ‘물리’, ‘화학’, ‘생물’로 구분되어 있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된 교과가 유지되고 있는 데 비해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교과목들을 ‘자연과학’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저연령층 학생들에게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기술’, ‘기초기술’ 등 기술 관련 교과가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전의 ‘컴퓨터’ 교과가 컴퓨터의 활용과 기초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둔 개론서적인 성격의 교과라면, ‘정보기술’ 교과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여 정보기술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활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정보기술’ 교과는 교육조건을 고려하여 몇 시간, 하루, 며칠씩 나누어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기술’ 과목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생산의 기초가 되는 도구와 연장의 사용법을 익히고 기초적인 공정을 이해

<sup>38</sup> 2013년 1월 17일자 『교육신문』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정은 위대성교양자료집과 ‘김일성-김정일주의’ 교과서 출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김정은동지 현지지도사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한 정치교양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과목이다. 수업과 평가에서 기능의 습득에 특히 중점을 두어 수업시간 중 많은 부분을 실습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예체능 교과로는 ‘체육’, ‘음악무용’, ‘미술’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체육’ 과목에서 7~8월에 매학년 1 주씩 수영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교과영역별 수업시간수 비중을 살펴보면, 정치사상교과가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어학 및 인문학 교과와 자연과학 교과가 각각 30% 정도를 차지한다. 기술교과의 비중이 10%에 약간 못 미치며, 예체능 교과의 비중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개별 과목으로는 ‘수학’ 시간이 3년간 578시간으로 가장 많고 ‘국어’와 ‘자연과학’이 각각 510시간, ‘영어’가 408시간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과수업 이외에 과외시간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기 지방에 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전쟁사적지, 계급교양거점 들에 대한 참관과 과학, 교육, 문화기관 및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명승지견학, 등산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외학습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씩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중학교에서는 각종 회의와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학생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과 후에 초급중학생들은 소년단, 고급중학생들은 청년동맹 조직활동을 하거나, 소조활동 등의 방과후 활동을 한다. 소년단 활동은 주당 4시간씩 ‘백두절세위인들을 따라배우는 학습’과 소년단 조직의 사회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과외체육은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날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나.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3년제 후기중등교육기관으로, 초급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14세 학생들이 입학한다. 학기 구분과 학업일수는 초급중학교와 같다. 1학년과 2학년은 총 52주, 3학년은 48주동안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중 수업은 1학년 30주, 2학년 28주, 3학년 23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의 비중이 초급중학교보다 낮다. 이는 3년의 교육기간에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 다른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견학은 3학년 과정에서 1주일간 실시되는데, 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급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면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원이 되어, 남녀학생 모두 학교 내와 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 군사훈련은 2학년 과

정에서 1주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무심기는 초급중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생산노동도 초급중학교에는 없는 과정으로, 매학년마다 3주간씩 주로 농번기에 농촌지원활동을 하는 것이다. 학년말동맹생활총화는 1, 2학년에서는 학년말시험이 끝난 다음 2일간, 3학년 졸업전 동맹생활총화는 졸업시험이 끝난 다음 2월 25일부터 27일 기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새 학년도 및 새 학기 준비기간은 초급중학교와 동일하다.

고급중학교의 교과목 구성 및 교과목별 수업시간수, 수업시간수 비중은 <표 2>와 같다. 고급중학교에서는 재학 3년 동안 총 22개 과목을 가르친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당 34시간, 3년간 총 3,258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초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45분 단위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이내, 토요일에는 4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고급중학교 교과목 및 수업시수

구분	과 목	학년 주수 총시간	1	2	3	수업 시간수 비중(%)
			15/15	14/14	13/10	
정치 사상 교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160	3(104)	2	-	4.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148	-	2	4	4.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42	-	1/2	-	1.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	81	1	1	1	2.5
	현행당정책	88	1주(20)	1주	1주	2.7
	사회주의도덕과 법	81	1	1	1	2.5
	소계	600	5	6.5	6	18.4
어학· 인문학 교과	심리와 논리	34	-	-	1주	1.0
	국어문학	215	3	2	3	6.6
	한 문	81	1	1	1	2.5
	영 어	243	3	3	3	7.5
	력 사	104	1	1	2	3.2

	지 리	81	1	1	1	2.5
	소계	758	9	8	10	23.3
자연 과학 교과	수 학	368	5	5/4	4	11.3
	물 리	331	5	4	3	10.2
	화 학	248	3	4	2	7.6
	생 물	220	3	3	2	6.8
	소계	1,167	16	16/15	11	35.8
	기술 교과	정보기술	111	2	1	1
기초기술		272	2주	3주	3주	8.3
공업(농업)기초		92	-	-	4	2.8
소계		475	2	1	5	14.6
예체능 교과	체 육	81	1	1	1	2.5
	예 술	81	1	1	1	2.5
	소계	162	2	2	2	5.0
군사 교과	군사활동초보	96	-	1주(48)	1주(48)	2.9
주당시간수		-	34	34	34	-
계, 학년별 교수시간수		3,258	1,122	1,136	1,000	-
과외학습		(465)	(5)	(5)	(5)	-
청년동맹생활		(372)	(4)	(4)	(4)	-
과외체육		(243)	(3)	(3)	(3)	-

자연과학 교과가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는 등 교과목이 초급중학교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현행당정책, 심리와 논리, 한문, 공업(농업)기초, 군사활동초보 등 초급중학교 과정에는 없는 과목이 추가된다. 정치사상교과로는 초급중학교의 ‘혁명활동’ 대신에 ‘혁명력사’를 가르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와 같이 김정은 일가의 항일혁명 역사 관련 교과와 ‘사회주의도덕과 법’, ‘현행당정책’ 과목을 가르친다. 현행당정책 과목은 김정은의 노작학습을 학기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은 해당 학년의 ‘김정은 혁명력사’ 과목에 포함시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김일성 혁명역사 교과는 1, 2학년에서, 김정일 혁명역사는 2, 3학년에서, 김정숙 혁명역사는 2학년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데 비해, 김정은 혁명역사는 매주 1시간씩으로, 전체 수업시간수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과목보다 많지는 않지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년에서 가르치고 있다.

어문·사회과학 교과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국어문학’, ‘한문’, ‘영어’, ‘역사’, ‘지리’ 과목이 있다.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있다.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교과도 별도로 가르치고 있다. ‘기초기술’ 교과는 교육조건을 고려하여 몇 시간, 하루, 며칠씩 나누어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기술’ 교과 수업은 1학년에서 2시간씩, 2, 3학년에서는 1시간씩을 배정하여 고급중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정보기술 기초를 다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기술’ 교과 관련 교수요강을 분석해보면, ‘정보기술’ 교과 교육과정은 활용가능한 지식과 기능 습득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기술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응용프로그램 사용법 위주의 교육내용이 강화되어, 실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실생활과 산업에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정보기술’ 교과 교육을 잘 이수한 학생들은 정보기술의 기본 개념과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북한의 경우 인트라넷)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 도표,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정보를 가공,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축적,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즉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소양과 더불어, 졸업 후 자신이 일하게 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탐색 및 활용 관련 사무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공업(농업)기초’ 과목은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역에서는 ‘공업기초’를,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기초’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공업기초’와 ‘농업기초’ 교과는 기계, 금속, 광업, 수산, 임업, 농산, 축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군교원재교육 강습소가 편성하고 인민위원회 교육부의 비준을 받아 각 학교에서 선택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공업(농업)기초’ 교과는 3학년에서만 주당 4시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되기 전에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기초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운전수를 양성하는 고급중학교에서는 ‘기초기술’ 과목과 ‘공업(농업)기초’ 과목 대신 ‘자동차(트랙도르)’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예체능 교과로는 ‘체육’, ‘예술’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체육’ 과목에서 7~8월에 청년동맹조직과 협동하여 매학년 1주씩 수영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 이외에 군사과목으로 ‘군사활동초보’ 교과가 있다. 이 과목은 2학년에서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으로, 3학년에서는 하루씩 야외숙영의 방법으로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현행당정책’, ‘심리와 논리’, ‘기초기술’, ‘군사활동초보’는 학기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교과영역별 수업시간수 비중을 살펴보면, 교과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이 큰 것은 전체 수업시간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자연과학교과이다. 정치사상교과와 기술교과의 비중은 초급중학교보다 약간 높아져 각각 18%, 15% 정도이다. 반면, 어학 및 인문학 교과와 예술 교과는 초급중학교보다 그 비중이 낮아져 각각 23%, 5% 정도이다. 고급중학교에서만 다루고 있는 군사교과목의 비중은 약 3% 정도이다. 개별 과목으로는 ‘수학’ 시간이 3년간 368시간으로 가장 많고, ‘물리’가 331시간, ‘기초기술’이 272시간, ‘화학’이 248시간으로 그 뒤를 이어, 자연과학 및 기술 교과에 중점이 두어짐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영어’ 교과도 총 243시간으로 총 215시간을 교육하는 ‘국어문학’보다 수업시간수가 많아, 영어교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급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수업 이외에 과외시간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기 지방에 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전쟁사적지,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과 과학, 교육, 문화기관 및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명승지견학, 등산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외학습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씩 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동맹활동은 주당 4시간씩 ‘백두절세위인들을 따라배우는 학습’과 청년동맹 조직의 사회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과외체육은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날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 3.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개정된 교육과정을 2012년 학제개정 이전의 중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sup>39</sup> 첫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중학교 6년 과정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었던 교육과정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됨에 따라

<sup>39</sup> 학제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 자료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p. 198. 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였다. 다만, 이는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나, 이 시기 북한 교육과정 문서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수업시수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 교과목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교과목 및 학년별 수업시간수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 초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의 교과목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연령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의 교과목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초급중학교에 단계에서 완전한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정도 통합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자 한 시도가 나타났다. 자연과학교과의 경우, 기존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물리, 화학, 생물이라는 과목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급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이라는 통합교과로, 고급중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이라는 기존의 과목명으로 운영된다.<sup>40</sup> 또한 고등교육으로 연계되는 후기중등교육의 특성상 고급중학교에서는 기술교과의 비중이 초급중학교보다 상당히 높고, 자연과학교과의 비중도 초급중학교보다 약간 더 높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출범에 따라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교과가 신설되었다. 정치사상교과로 초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고급중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 교과가 신설되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혁명업적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이상화교육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고급중학교(기존 중학교 고학년)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관련 교과의 수업시수는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초급중학교(기존 중학교 저학년)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관련 교과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3년을 통틀어 각 과목당 1시간 정도씩 증가하였다. 여기에 김정은 관련 교과가 신설된 것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 관련 교과가 신설되고 수업시수가 증가하는 등 기술교육이 강화되었고, 특히 정보화교육이 강화되었다. 기존에 중학교 4학년부부터 가르쳤던 ‘컴퓨터’ 과목이 ‘정보기술’로 과목명이 변경되면서 초급중학교 1학년부부터 가르치도록 하였다. 정보기술 과목에서는 특히 응용프로그램 사용법 위주의 교육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교육의 주안점이 실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실생활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중학교 4, 5학년에서 가르쳤던 제도 과목과 매 학년마다 1주씩 교육했던 실습과목 대신 ‘기

<sup>40</sup> 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는 교육신문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3년 9월 12일자 『교육신문』에서는 새 교육강령이 “낮은 교종단계에서의 통합교육 방식과 높은 교종단계에서의 학과목위주의 교육방식을 배합하여 학교전교육으로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종의 교육내용에서 체계와 순차를 명백히 하고 계승성과 통일성, 연관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술' 교과를 신설하여 초급중학교 1학년부터 고급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고급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업(농업)기초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여, 졸업 후 각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산업기술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술 관련 교과군은 교육 시작 학년을 낮추거나 교과를 신설함에 따라 전체적인 교육시간이 늘어났다.

넷째, 정치사상교과와 기술 관련 교과의 수업시간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타 교과의 수업시간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중학교 저학년에서 물리, 화학, 생물로 나뉘었던 자연과학교과는 초급중학교로 개편되면서 자연과학교과로 통합되고 수업시간수가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기술 교과의 수업시간수 증가와 함께, 2012년 교육과정 개정이 초급중학교 단계에서 자연과학 기초 및 기술 기초 형성의 강화에 중점이 두어졌음을 말해준다. 교육과정 개정 이후 수업시간수가 감소한 교과는 한문, 지리, 역사, 수학 등의 과목이다. 기존에 중학교 1~3학년 과정에서 매주 1~2시간씩 가르쳤던 한문 교과는 개정된 초급중학교에서는 폐지되고, 고급중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다. 초급중학교 조선지리(기존에 지리)과목의 수업시간수는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역사와 지리 과목의 수업시간수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수학과목의 수업시간수도 각 학년당 1시간씩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정책은 상당한 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갈 '창조형', '실천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계적 교육 추세를 반영한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12년 9월에 실시된 학제개편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이다. 북한은 학제개편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영도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경제난 이후 현저히 저하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국제적 교육추세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재편함으로써 후기중등교육에서 산업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으려 하고 있다. 2013년 교육강령상에 나타난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확실히 초등교육 1년 연장을 반영하여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이전 시기보다 잘 구조화되고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교육내

용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밝힌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을 보면, 2014년부터 각 학교의 1학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1학년의 교과서 편찬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연수 및 2, 3학년 교과서 편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사와 교육시설, 기자재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정보기술 등 일부 과학기술 관련 교과의 내용은 컴퓨터 등 첨단교육시설이 없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교육강령상의 교육과정이 실제로 운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밝힌대로 교육 정보화, 교원 양성 강화, 교육예산 증액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전국가적 동원이나 국제적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정치사상교육이 창조적 사고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로 창조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력이 양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관광과 체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북한의 국제협력사업이 교육부문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교육 분야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세계화’와 이를 통한 인재 양성, 경제 발전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잘 준비된 접촉은 변화와 상호이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 또는 정치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면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크다. 중등교육 부문에 국한하여 보면, 영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이 그러한 분야에 해당한다. 영어교육은 최근 북한이 EU 지역의 교수인력을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강령상에 나타난 교육 내용의 구조를 보면, 일반 중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그 체계와 내용이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수법, 교수매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도 남북교육교류의 주요한 축이 될 것이다. 중등학교 ‘정보기술’ 교과의 교육내용에 나타난 바로는 윈도우즈와 리눅스 체계에서 호환가능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

한 어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첨단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북한 학교의 상황을 생각할 때 컴퓨터 등 하드웨어 지원이 시급하나, 이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 국내의 교수인력과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북한의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단기 연수 형태의 방남 프로그램 실시를 고려할 수 있겠다.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 러시아, 개성공단 등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의 거점을 지정하여 정보통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계에서 교수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바, 남북 간 교육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교수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지원, 교류와 교사 및 교육연구인력들 간의 인적교류도 추진해볼 수 있겠다. 또한 교육 정보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고려한다면, 원격교육, 교육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 교류 및 지원도 향후 남북 교육교류의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남북한 교육통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북한의 학제개정으로 인해 남북한 초등 교육기간의 격차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북한의 학제가 국제표준학제에 좀 더 가까워져, 학제통합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 정치사상교과와 역사·사회과는 교과목 구성 자체가 다르거나, 같은 교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상의 차이가 많아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반면, 자연과학교과나 기술교과는 북한 교육내용이 개선되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자연과학 교과의 경우 우리 교육과정보다도 난이도가 높아, 비교적 교육과정 통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기중등교육의 경우 남한은 계열이 분리되고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일반 중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구조이므로,<sup>41</sup> 남북한이 상이한 이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 통합의 방향도 달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을 대비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 접수: 10월 15일 ■ 심사: 10월 23일 ■ 채택: 11월 14일

41 2014년 10월 2일자 『로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학제개편의 후속작업으로 “중등일반지식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일반고급중학교”와 구별되는 기술고급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 기술고급중학교에서는 “일반교육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수년 내에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후기중등교육 계열의 분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4.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2. 논문

- 김광성.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학생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인재후비들로 키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 『인민교육』. 6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김덕현. “교육사업의 정보화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 『교원선전수첩』. 4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김 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형식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인민교육』. 4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김용길. “교육사업에서 실리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교원선전수첩』. 1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3.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3권 제3호(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리무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사상은 보통교육부문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력한지침.” 『인민교육』. 4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박영도. “새 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중학교 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교원선전수첩』. 3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유성철. “중등일반교육단계의 교육내용개선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원선전수첩』. 3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전혜선. “새 교과서를 리해하고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2014년 1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4.  
 차기철. “현시기 교육방법개선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2012년 6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2.  
 본사기자. “이렇게 세계앞에 나선다.” 『인민교육』. 2014년 3호, 평양: 교육신문사, 2014.  
 \_\_\_\_\_. “지식경제시대의 교육.” 『천리마』. 2013년 7호, 평양: 천리마사, 2013.  
 Cho, J. A., H. K. Lee & K. S. Kim. “Korea: An Overview.” Pei-tseng Jenny Hsieh (ed.). *Education in East Asia*. London & N.Y.: Bloomsbury Academic, 2013.

### 3. 기타자료

- 『교육신문』.

『로동신문』.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2013.

\_\_\_\_\_.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2013.

\_\_\_\_\_. “우리는 어떤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는가.” 2013.

##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Reform of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Jeong-Ah Cho*

This article infer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under Kim Jong-un by analyzing the discourse on North Korea's education after the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 as well as implications of reforming the school system according to the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f September 2012 and the contents of the revise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Kim Jong-un era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emphasizes 'creative' and 'practitioner' types of talents fit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e' and the 'age of knowledge economy.' Second, i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informatization of education. Third, it has been putting effor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global education and has been improv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urriculum which has been revised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 reform of September 2012 are as follows. First, as secondary education is divided into junior secondary schooling and senior secondary schooling, some subjects have been changed and the number of class hours of each grade has been adjusted accordingly. Especially integrated education curriculum was partially applied to education at junior secondary school level. Second, education on political ideology has been intensified, creating a political ideology subject regarding Kim Jong-un. Third,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has been strengthen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IT education, establishing technology related subjects such as 'basic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creasing class hours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bjects.

**Key Words:** Education under Kim Jong-un, North Korean Curriculum, North Korean Education, the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